



2026 VISION

흔한 구역, 함께 키우는 아이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전도서 4장 9절]



가정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충일교회 가정사역부

성경이야기

안녕하세요, 친구들! 혹시 밤에 불을 다 끄고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쿵!” 소리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 깜짝 놀라서 이불을 꼭 붙잡게 되지요? 어둡고 조용한 밤에는 작은 소리도 크게 느껴져요.

오늘 말씀에도 아주 깜짝 놀랄 일이 있었어요.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이 밤에 조용히 적군 진영 가까이 갔어요. 그때는 파수꾼이 막 교대하던 시간이었어요. 모두가 방심하고 있을 때였지요. 그런데 갑자기 “뽕!”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향아리를 “뽕그랑!” 깨뜨렸어요. 깜깜한 어둠 속에서 향아리가 깨지며 안에 숨겨 두었던 횃불이 번쩍 빛났어요. 그리고 모두 함께 크게 외쳤어요.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그 순간 적군들은 너무 놀랐어요. 사방에서 소리가 들리고, 빛이 번쩍이니 큰 군대가 쳐들어온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셨다.” 하나님이 직접 일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군인들이 많이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싸워 주셨어요. 기드온의 군사는 300명뿐이었어요. 적군은 훨씬 많았어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시니 결과는 달라졌어요. 하나님은 크고 강하신 분이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 혼자 두지 않으세요!

우리도 그래요. 혼자서는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괜찮아요. 친구와 다툼 때, 무서울 때, 속상할 때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세요!

우리 함께 따라 말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 주세요!”

충일교회 가정사역부

예배순서

사도신경 다 같이

찬송 반짝 아이 달려갑니다 다 같이

말씀봉독 사사기 7:19~25절 다 같이

설교 하나님이 싸우셨어요 설교자

말씀나눔 다 같이

합심기도 다 같이

축복기도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주기도문 다 같이

- ★ 찬송과 축복기도문과 말씀 나눔은 뒷면을 참조해 주세요
- ★ 합심기도는 가족원들의 기도제목으로 같이 기도해 주세요.

찬양



반짝 아이 달려갑니다

▶ 찬양 동영상 바로가기

공동기도문

사랑의 하나님,

기드온과 함께하셔서 싸워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가 무서울 때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것을 믿어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먼저 찾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나눔

1. 기드온과 용사들은 무엇을 불고 깨뜨렸나요?
2. 이스라엘을 위해 싸워 주신 분은 누구인가요?